

PEOPLE

2025년 4월 2일 수요일



한전KDN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투명한 공정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실천 결의를 다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서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의 공정 경영과 공정 계약 준수 당부로 시작된 계약업무 소개, 노사 대표 서약식,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 및 부당공동행위 예방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정거래 문화 조성과 실천을 담은 서약서에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박종섭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임원진이 현장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해 전 임직원이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스스로 욕심을 경계하고 공정을 유지하는 실천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여수국가산단 산업안전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는 지난날 31일 여수 석창사거리에서 '여수국가산단 산업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등이 동참했으며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대 여수국가산단의 안전과 발전을 다짐하는 슬로건으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안전모를 착용,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용우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각 기관·협회·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직접 참여해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캠페인의 취지를 살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송대홍 기자 sdw0918@



장성교육지원청

문화유산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

장성교육지원청은 최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장성글로벌교육센터 교사 등 29명을 대상으로 장성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장성의 대표 유산인 박수량백배, 필암서원, 백양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탐방과 함께 한국 전통예절,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유교 문화의 뿌리와 장성의 역사적 배경, 지역 인물의 유산 등을 경험했다.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장성글로벌교육센터 주관으로 지역문화와 연계된 영어 수업 자료 개발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이향범 기자

“광주 효령타운서 품격있는 노후 따뜻한 동행을”

광주시, 개원 15주년 기념행사

새 슬로건 선포·유공자 포상

강기정 시장 등 1000여명 참석

“어르신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

‘품격있는 노후, 따뜻한 동행!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는 1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개원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효령타운이 걸어온 15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미래를 다짐하는 행사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효령노인복지타운 회원, 주민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구호(슬로건) ‘품격있는 노후, 따뜻한 동행!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선포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타운의 역할과 가치를 되새겼다.

또 효령타운 발전에 기여한 박관용·서형선 직원과 봉사활동 등 모범시민 조재태·전혜숙·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열린 효령노인복지타운 개원 1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슬로건 선포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노갑천 씨에게 광주광역시 표창이 수여됐다.

강기정 시장은 “어르신들이 밝고 건강하고 활기차 우리 사회가 더욱 더 밝고 건강해진다”며 “빛고을타운과 효령타운에 이어 광산구에도 노인타운 건립을 시작한다. 광주는 어르신들이 살기 가장 좋은 도시, 대한민국 어르신들 복지의 표준을 만드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제힐스테이트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깜찍한 율동 무대, 라인댄스 회원들의

신나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돋웠다. 또 (사)코리아문화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과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효령장터’에서는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부스(남구·북구·광산구시니어클럽)와 건강관리 부스(조선간호대학교, 북구보건소, 신세계안과, 아로마치유마사지 동아리)가 마련돼 구강검진, 혈압·혈당 체크, 아로마 마사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울림 노래한마당’도 열려 참석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행사 분위기를 더욱 달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은 노인일자리사업 특화시설로 등록회원은 1만4590여명이며, 일평균 12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10개 사업단 423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년사회 화교육사업 59종 89개 반을 운영 중이며, 파크골프장·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4월 전남 임업인에 참두릅 재배 정의경 대표

2018년부터 생산·품질향상·생산량 증가 노력·지역사회 공헌

전남도는 4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함평에서 참두릅을 생산하는 정의경 다묘야영농조합법인 대표(사진)를 선정했다.

정 대표는 2018년부터 7년간 참두릅을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3000kg의 참두릅을 생산해 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18년 임업후계자로 선정, 현재 임업후계자협회 함평지회장을 맡고 있다. 참두릅의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속성재배 방법이나 시설하우스 개량에 대해 지속 노력 중이다.

최신 소비경향을 반영한 상품개발이나 소포장 기술도 도입해 참두릅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정 대표는 주변 임업인과 함께 참두릅 생산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생산된 참두릅을 여러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꾸준히 공헌하고 있다.

참두릅은 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두릅나무의 어린줄기나 새싹으로, 봄철 새순이 나오는 시기에만 채취·수확하는 산나물류다. 맛이 독특하고 영양가가 높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

밭속에서 생육하는 독활이라는 식물의 새순인 ‘참두릅’이나 산지에서 생육하는 음나무 새순인 ‘개두릅’과 달리 ‘참두릅’은 다양한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하고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다.

또한 다른 두릅에 비해 맛과 향이 부드럽고 할당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으며, 봄철 신선 먹거리로 수요가 많다.

정의경 대표는 “앞으로도 참두릅 생산량을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해 소비자들이 신선한 임산물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두릅이 전남도의 대표 임산물로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도는 2024년 기준 777만 5000kg(생산액 529억 원)의 산나물류를 생산했으며, 이중 두릅의 생산량은 21만 3000kg(생산액 38억 원)이다.

이현기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유관기관 협력·주거 안정 정책 강화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2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기획된 것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역 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승남 사장은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의 자력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병철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회장과 구길용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을 지목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역 내 인구 문제 해결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맞춤형 주거 지원,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남구 에너지밸리 ‘누구나 집’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승남 사장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주도시공사는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광주, 인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서구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인 ‘서구기억해온단’을 위촉하고, 금호1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했다.

광주 서구 ‘치매 안심도시’ 구현 앞장

치매자원봉사단 발족·금호1동 현판식 진행

광주 서구가 ‘치매 안심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이날 서구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인 ‘서구기억해온단’을 위촉하고, 금호1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는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6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지 정서 지원 전문가 1급 교육과정을 수료 후 치매 안심마을 생활공간을 순회하면서 인지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 개선 활동,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보조,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 해소에 앞장선다.

또 서구는 상무2동, 풍암동에 이어 오는 4일 금호1동을 3번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 현판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60세 이상 주민 대상 집중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서구기억해온단’ 활동도 지원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치매는 환자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걱정 없이 더불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길어진 노후 생활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의 치매 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치매검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산구, 감염병 안전한 사회 만들기 ‘감자 서포터즈’ 발대식 광주 광산구가 최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감자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광산구